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

신명기 6:4-9, 요한복음 21:15-18

최정웅 목사님

우리가 류목사님을 통해서, 내년 세계복음화를 위해 파라처치(Para Church)에서 나갈 주제를 잡았다. 제2 RUTC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제2 RUTC운동과 나를 붙잡고,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잘 잡은 줄 믿는다. 이것을 토대로, 로컬처치(Local Church)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금년 총회의 주제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총회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한국의 60%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태영위 같은 교회학교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시대를 살리려면 후대를 살리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총회의 주제와 같이, 우리 교회도 다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로 주제를 잡았다. 그런 중에서, 국가적으로 혼란이 심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나라와 세계는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언제나처럼 2016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기회였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교단 전체의 축제인 총회를 은혜 가운데 지냈다. 늘 해 왔던 것이지만, 특히 올해 캠프는 모델적인 캠프를 했던 것 같다. 연말 크리스마스 행사까지, 지역을 살리도록, 문화 흐름을 바꾸는 많은 응답들을 받은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2017년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오늘 밤이 되어야 되겠다.

서론

2017년 우리의 주제는, 총회 전체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다. 잘 아시는 대로, 2017년은 중요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다. 우리 전도운동 전체적으로는 제2의 RUTC시대가 열리는 응답의 원년이 되고,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가 된다. 세계렘넌트대회는 20주년을 맞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게 된다. 수년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기를 나누어 왔지만, 마침내 올해 우리가 회년일을 맞게 된 것이다. 모든 노에 되었던 자들을 끌어주는 해방의 해가 바로 회년이다. 모든 노에 되었던 것들을 청산하는 회년이 되는 것이다. 일곱 안식년을 지낸 다음 해가 바로 회년인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토지를 물려주고, 노예들은 해방시켜주며, 빛은 탕감해주고, 원수들은 전부 화해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회년은 굉장한 축복의 해다. 하나님이 50주년이 되는 금년에, 우리 참사랑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줄 믿는다.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다. 지금까지 5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두고, 제2의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지나간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100년의 응답을 기다리는 축복의 해가 되어야 되겠다. 변화와 도약의 흐름을 제대로 붙잡고, 세계 살림 그릇을 다 확실하게 준비하며 전진해 나가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세계복음화 전체를 두고, 우리 자신과 후대를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준비시키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1.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역의 의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올해 우리가 다시 붙잡게 된 주제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다. 첫째는 언약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후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전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나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를 굳게 붙잡고, 2017년에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야 되겠다.

(1) 첫 번째로,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것이다.

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우리 고향은 에덴이였다.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다. 4대 강이 흐르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다.

② 그런데 원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따라감으로써,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넘어지고 망해 버렸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누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망배되고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태양을 보고, 조금 큰 돌만 있어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되었다. 정말 처참하게 망해버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귀신 하면 벌써 벌벌 떨지 않나. 지성인, 비지성인,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상관 없이 그렇다. 귀신 하면 벌벌 떠다. 무서워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 버렸다.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그 신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엄마 찾아 삼만 리라는 영화를 내가 어릴 때 봤는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때는 집에 가면 엄마가 계시길 뻔인데도, 그 영화를 보니까 내가 꼭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서럽게 되었던 것 같아서 영영 울었었다. 엄마만 잃어버려도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되었는가.

③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 길을 주셨다. 새로운 길을 주신 것이다. 그제 메시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그 언약, 그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매일 44명씩 자살하고 있다. 살 길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가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매일 44명이라고 한다.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닌가. 살 희망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제 구약이고 신약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메시야,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1, 3, 8이다.

1) 예수님이 메시야가 되어서 언약의 마침이 되시고, 언약의 종결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부활하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할 때는 꼭 부활을 생각하라.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했다. 완전히 해결한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눈물의 자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위인이 어디 있겠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처형당했지만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신명기 22:21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다. 그 저주를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셨다

가 부활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저주와 절망과 지옥과 미움과 사단에게 사로잡혀 중 되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2)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사도행전 1:3,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는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오늘 밤에 돌아가서 내 안에 주님 계신지 생각해 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부터 완전한 평화가 온다. 원수 마귀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 희망이 생긴다. 꿈이 생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참 용기가 생긴다.

3)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언약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충만까지 주신 것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는 줄 믿는다.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인을 보고 성도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겠는가?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가. (웃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가리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고린도전서 3:16, 6:19. 기록되어 있다.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문제, 단순한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원죄 문제,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문제를 절대 해결을 못 한다. 대통령도 해결 못 하지 않나. 우모 씨라는 사람은 천재다. 내가 보니까 천재더라. 18살 먹어서 고시에 합격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고시에 합격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영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다. 내가 가끔 부른 노래 가운데 이게 있지 않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시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복된 노래도 불렀습시다." 그 가사가 3절까지 있는데, 나는 4절을 만들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참 사랑을 알았습시다. 참 사랑을 받았습시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참 소망도 생겼습시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면 소망이 생긴다. 내가 직접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사를 지은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갈 길을 찾았습시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할 일도 알았습시다. 나의 길인 예수, 나의 생명이신 예수,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갈 길을 알았습시다."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그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전달해 주어야 한다. 많은 재산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참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은 지금 악령이 지배하는 나라다. 귀신이 충만해서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복음화를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이 원수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오셔야만 이 악령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슨 악령이나 지배하러 오신 것이냐'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 없으면 그러면 될 허러 오셨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 온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본질을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아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2) 두 번째는 '후대'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완벽한 방법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대를 이어가지 않고는 세계복음화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전달해 주어야 한다.

- ① 이사야 6:13에 보니까, 그 후대를 통해서,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 램넌트를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 ② 예수님은 누가복음 23:28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다.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말씀하. 너희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녀들을 돌보라는 것이다.
- ③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양을 잘 치라고 말씀하셨다.
- ④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후대를 제자로 삼으라고, 언약을 디모데에게 전달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이다. "내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3장에서 말했다. "너는 마지막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17의 말씀이다.

후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며 명령이다.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큰 보배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자녀를 원수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내 보배다. 딸아, 아들이야. 너는 내 보배다."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보배 아닌가? 그렇게 사랑하라. 물론 성경 잠언서에는 때리라는 말도 좀 있다. (웃음) 그래야 바른 길로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나. (웃음) 사랑의 매를 가지고 진짜 버릇 고친 아이도 있다. 나도 경험이 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얼마나 개구쟁이인지,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불려서 한 번 때렸다. 마귀를 한 대. (웃음) 사람마다 분노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도 화도 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방 때렸는데 좀 세계 때렸던 것 같다. 얼굴이 벌겋더라. 내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이 아이가 또 아프니까 울더라.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 아이는 아파서 울고, 나는 미안해서 울고, 선생님이 참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때렸으니 얼마나 미안했는지, 한참을 울었다. "아무개야,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도 안 때렸어야 하는데 내가 못된 교사구나. 잘못했다." 아이도 아이가 없었던 가보다. 선생님이 같이 울고 그러니까, 들어서 유달산 올라가서 바다 구경하고, 맛있는 것 사주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 뒤로 이 아이와 굉장히 친해졌다.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잡혀더라. 그날 이후로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러다고 교사들은 때리거나 그러지 마라. 싸매 주지 못할 것은 찢지 말라는 교육학의 경구가 있다. 감싸지 못할 상처는 내지 마라. 냐으면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르지 않나. 나는 지금 5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말로 해라. 말이 통할 것이다. 기다려 줘라. 어떻든지, 언약을 전달해야 한다.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3)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면 망하는 것 아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바톤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램넌트대회를 할 때마다, 램넌트들이 모여오고, 세계에서 모여오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 보는 데에서 온다. 너무 감동되어서 울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울고, 정말 복음 전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달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전달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을 네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①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한다. 부모가 언약이 분명하면, 자식은 부모가 가진 신앙을 그대로 전달받게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은 이심전심으로 전달된다. 말이 아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그 자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만 교역자가 계속 죽어나는 교회가 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별 사람도 아닌데 거기 가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사는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전통을 세울 가만 전하기를 생각해야 한다. 좋은 전통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교회에는 악마가 있다. 우리 교회가 있던 자리에 들어온 교회에 또 싸움이 일어났다. 희한한 일이다. 악령이 확실히 교회 안에 있구나 싶다. 그 악령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때려잡는 비법을 알지 않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그 믿음으로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부모 상담을 하면서, 엄마가 딸에게 시집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빠가 아들에게 장가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한다.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어야 한다. 십일조는 어떻게 하는지, 주일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첫 월급을 받으면 내복 사오라고 하면 안 된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 번 말했다. 두 램넌트가 그렇게 하더라. 부모가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② 그 다음에,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램넌트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자기 신앙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했고, 주일은 어떻게 지켰는지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중학교 간 아이가 주일학생들과 같이 합숙을 하면서 공부할 자는데, 자기가 중학교 가니까 이렇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 줬더니, 초등학생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 않나.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잘 했다 싶었다는데, 그런 포럼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은 자녀와 함께 밤을 새면서 그런 포럼을 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못 했으니, 자녀들이 자기 가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여러분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지 말해준 적이 없지 않나. 가정에 초창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잠을 자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진정으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 남자 선생님이 남자 램넌트를, 여자 선생님이 여자 램넌트를 데리고 이렇게 해 보라.

③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시골에 있을 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상이 도시화가 되면서 너무 각박해졌다. 전에는 뭐든지 나눠먹고 주고 그랬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남는 게 있으면 다 나가서 팔지, 나누지 않는다. 도시화 이후에 인생은 돈밖에 모르게 되고, 인정이라는 게 없어졌다. 그런 세상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대구에서 고등부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고등부 회장을 대학에 진학한 아이가 해 주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형님 아닌가? 대학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또 존경을 받으면서 하더라. 아이들이 대학에 대한 견해를 하는 것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태영아부, 유지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내리사랑을 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손 잡아주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 생활은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다. 교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④ 그 다음에 해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복음 훈련된 청지기, 중직자가,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와 새신자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여러분에게 괜히 장로 직을 준 것이 아니다. 잔소리하러, 목에 힘 주려고 세운 것이 아니다. 모범을 보이려고 세운 것이다. 지금 시대는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문화를 다 잊어버렸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고향이라는 개념 자체도 다 잊어버렸다. 우리 램넌트의 고향이 다 아스팔트 아닌가? 아파트 벽 아닌가? 저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들어 가서 개미와 같이 노는 경향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정서가 없다. 루소는 <에밀>에서 아이는 반드시 시골에서 길러야 한다고 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길러야 정서가 생긴다는 것이다. 시심이 생기고 자연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것이다. 이 교회가 아이들의 고향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으로 삼아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고향으로 삼고 뿌리내려서, 어른이 아이를 끌어주어, 선배가 후배를 세워주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운동의 도도한 흐름이 멈추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축복한다.

2.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방법

그러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간단히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1) 첫째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신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일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아야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전달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겠는가. 전달해야 할 핵심인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말씀이 흘러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간단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놀라지 않겠다. 설교 시간에 그 청찬을 세 번이나 하더라. 그 기도문 좀 써서 자기 달라고 그러겠지 않나. 간단 메시지야 소망부에서 시작해서 유아유치부, 태영아부 램넌트에게까지 하시 되어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전도운동 전체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흘러내려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메시지를 들었지 않나. 1년 동안 계속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리에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동참하기를 축복한다. 정말로 축복한다. 나는 산업선교에 가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큰일 났구나 싶다. 다른 교회는 램넌트들까지 와서 멘토링을 하고 인턴십을 하는데, 우리 램넌트들은 배회하고 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 중직자 여러분, 정신을 딱 자리시켜야 한다. 요한 복음 8:31-32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말씀의 흐름에 전부를 거는 올-인의 응답이 금년에는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된다.

(2) 둘째는, 헌신의 시간표를 발견하기 바란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뻔질 거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도록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은, 이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닌 모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all 하든지 nothing 하든지 해야 한다. 전부를 걸든지, 완전히 안 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규례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할 것인지를 보며 일어나야 한다. 내가 정은주 목사님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하면서, 주일학교를 맡으라 해서 부장으로 맡은 후에는, 선생님을 불러서 전부 자기 돈으로 짜면 사 주고, 임원을 간부를 불러서 짜면 사 주면서 주일학교 부흥시키자 했더니 부흥이 되더라는 것이다. 이 파트 저 파트 다 맡아서 그렇게 했는데, 청년부까지 다 부흥했다고 한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그분을 통해서 그때 다 부흥되었다는 것이다. 같이 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힘을 내더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 우리 참사랑교회에 그런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지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할 것인지를 보며,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① RUTC 응답을 앞장서서 반드시 홀리메이슨이 일어나야 한다. 저 분이 정말 홀리메이슨이구나 할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

② 램넌트 살릴 램넌트 선교사, missionary가 일어나야 한다.

③ 교회 살릴 비밀결사대가 일어나야 한다. 오늘 내가 명단을 가져왔다. 장로님들과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송구영신 시간이라 가져와 보았다. 헌금 작성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고, 그냥 70인 요원과 300인 용사를 세우자 하는 이야기를 당회에서 하셨다. 그래서 70인 요원에 들어간 분이 12명이다. 300명 헌당 용사는 딱 100명이다. 한 10년간 헌금 한 것이 그렇다. 그것을 보면서 낙심도 좀 됐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사람은 7만 원만 더 내면 300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70인 비밀결사대에 들어올 분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 사무원은 이야기해서, '당신은 희망이 있다. 70인 비밀결사대가 될 수 있다' 하고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70인 비밀결사대에 들어올 분도 있다. 전부 해 보니까 헌금당 분이 500여 명 되지만, 대부분은 미치지 못한 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이 와서 헌당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해야 한다.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노회가 이 교회 목회를 하도록 보낸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두 번째로 부부가 다 이름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한다. 어떤 분은 70인에 들어갔는데, 조금만 더 힘내면 부부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하지만, 약간 못 미친다. 민정환 선생님 이름도 있다. 권은희 권사님이 헌신을 많이 했으니 덕분에 같이 이름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부인 덕분에 남편 이름 들어간 분이 몇 분 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집사님이 300인에 들어갔다. 우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것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나도 300인에 들어가고 싶어요. 70인에는 12명밖에 없다 하니, 남은 58명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세요." 기도해 보라.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주신 생활비를 가지고 목사가 4억 원 헌금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부부는 했다. 기도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밀결사대가 되시기를 바란다. 70인 비밀결사대로 들어와라. 나는 이것은 동판에 새겨서 교회 벽에 새기려고 한다. 여러 교회에 가서 본 것이 있어서 그대로 할 것이다. 영원히 남게 할 것이다.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렇게 여러분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란다. 누가 해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않은 의자 값도 안 내고 10년 동안이나 앉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면 좋겠다.

(3) 이러면 세 번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운동의 역사에 남는 전도자의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남겨야 한다. 누가가 데오발토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영원한 작품이 되지 않았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고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다했이 시를 썼다. 맹인 크로브스카 시를 썼다. 그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있다. 현장을 살리는 작품을 남길 때,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후대가 그것을 보고 알게 된다. '아, 그렇구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흐름이 계속 흘러가게 된다.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게 된다.

결론

말씀을 마치겠다. 후대를 살리도록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자의 마음이 무엇이겠는가? 세 가지 결단을 2017년을 시작하면서 내렸으면 좋겠다.

(1) 사람 중심의 인생을 던져 버리자. 벗어 버리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란다. 모든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사도행전 1:1,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자는 말이다. (2) 둘째는, 육신 세계를 우선순위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항상 영적 세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은 창세기 6장을 무너뜨리는 사도행전 1:31과 같다. 하나님 의 나라를 붙잡는 우선순위의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을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지 않다. 이제는 아니냐 선언하고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 보자. (3) 기준이 자꾸 성공이었는데, 이것을 오직 복음화라는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복음이다. 언약이다. 우리의 증거는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 증거를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이것으로 창세기 11장을 무너뜨리고, 사도행전 1:8의 응답을 누리도록 결심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2017년에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는다. 이 응답이 100년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인생에 남는 응답이 임하고, 후대를 살리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남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2017년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약한데로, 나는 부족한데로, 나는 안 돼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성경은 말한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해 주겠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2017년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2017년도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시며 복음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며, 복음 가진 고향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고향으로 삼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서 대대손손 이어갈 복음의 바톤을 받아가는 아름다운 전달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